

생기있게

Orien Johnson

1. 푸르른 시냇가 의 물결 이 흐르는
 2. 동녘에 아침햇빛 찬란히 비칠 때
 3. 주님은 마지막 이 세상에 오시어

조용한 목장길을
 주님께 하루기도
 양떼를 품에 안고

Fine

따라서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와 거닐며
 드리며 목마른 양떼들을 몰아서 물가로
 가리라 영원한 행복 속에 우리를 이끌어

기뻐하노라
 물을 먹인다
 함께 살리라

시냇가 푸른 들 주님 함께 거닐며 어둔

산골짜기 언덕 위에 주님 함 거닐며

D. C.

밤 험한 길 두려 움 이 없노 라

캄캄한 밤 걸어가도 두려 움